

이재명,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하며 ‘통합 행보’… 윤여준 영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강조한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며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홍성국·김병주·송순호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 대변인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후보는 현충당을 향해 분향·묵념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이어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논쟁거리로 여겨졌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며 ‘통합 행보’를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했다.

이 후보,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시작

김민석 제안에 박태준 전 총리 참배도

윤여준 전 장관 영입 사실 공개…선대위원장 내정

그는 이어 사자성어 ‘구동존이’를 언급하며 “좌우의 통합이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든 똑같이질 수는 없겠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공통점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저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화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음지 만큼 양지가 있고 동전은 앞면이 있는 거 처럼 뒷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박 전 총리 묘역을 찾은 데 대해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DJP 연합, 일종의 진보·보수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다. 한번 찾아가보자’라고 (제안)했고 (저도) 동의해서 일정에 없던 박 전 총리 묘소를 한번 둘러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망인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사회에 맡겨져 된다.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나간 이야기나 이념·진영 등은 잠깐 결으로 미뤄두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며 “너무 한 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연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장관은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안철수 후보 등을 도우며 중도·보수 선거 전략가로 활동해왔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윤 전 장관과 만나 오찬을 하며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뉴스1

북, 러 파병 공식 확인… 김정은 방러 정상회담 임박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파병 이후 6개월 만이다. 러시아 전승절(5월9일) 전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북러 혈맹’을 대대적으로 띄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확인했다. 짧은 시차를 두고 공식 확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군사위는 한때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며 격전지가 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사수하기 위한 파병이었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조로(북러) 두 나라 군대가 어깨걸고 한 전호에서 피 흘려 싸우면서 전취한 이 고귀한 승리로 하여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근 9개월 간의 푸르스크(쿠르스크) 지역 강점이 종식”됐다고 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

6개월 만에 인정… ‘러 본토 쿠르스크 해방’ 명분

북러조약 4조, 파병 근거로 제시… ‘혈맹’ 띄우기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전후 김정은 방러 전망

공하며 러우전쟁이 발발했는데, 쿠르스크 전투는 ‘러시아 영토 해방’ 작전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파병이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근거로 단행됐다고 명시했다. 이 조약 4조에 따르면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일종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다.

북한이 ‘쿠르스크 해방작전’을 강조한 것은 러시아 영토가 “우크라이나 당국의 무력침공”을 받은 상황에서 정당한 조약 발동이라는 명분을 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위는 또 파병이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북러조약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을 맞아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대면할지 관심이 쏠린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김 위원장의 방러를 준비 중이라고 지난 달 밝힌 바 있다.

전승절은 옛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이벤트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여러 국가의 정상이 모이는 다자행사인 전승절 기념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다자외교 무대에 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꼭 전승절이 아니더라도 그 전후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며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주고받기’를 완성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양자가 만나 포포먼스 효과를 극대화할지 다자외교 장에서 기여국의 역할을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1

한덕수, 5월 1일 사퇴·2일 출마 선언 유력

“이념, 진영 떠나 갈등 녹여내는 통합의 용광로 캠프 구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 측은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대선 캠프 구상에도 본격 착수했다.

한 대행 측 핵심관계자는 28일 뉴스1에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며 “경제와 통합, 안심을 기조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념, 진영을 떠나 국가 발전과 안정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화합의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은 아직 손 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일부 총리실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행은 당초 오는 30일께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정례 국무회의까지 주재한 후 그 다음날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관측에서였다.

하지만 한 대행은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업과 해양안보 협력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 대행이 펠란 장관과 접견을 한 이후 다음날 사퇴하는 것으로 ‘D-데이’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곡성군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금 - 25^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